농협 광주유통센터 개장 지연 '수백억 피해'

시공사 부도 공사 중단 … 4~5개월 차질

하루 4억 매출 손실 … 1천여명 고용 못해

9일 문을 열 예정이던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장이 수개월 늦어져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불가피 하게 됐다.

8일 농협중앙회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호수공원 건너편에 호남 최대 농산물도매물류기지인 광주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 센터는 농협이 사업비 885억원 전액을 투자한 것으로, 대지 3만7819㎡, 연면적 4만5769㎡, 영업면적 1만6073㎡로 호남 최대 규모의 농산물직거래장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는 농산물도매매장(2762㎡)과 식재료매장(3112㎡), 하나로클럽(8220㎡), 고객편의시설(문화센터, 병원, 약국, 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 센터는 각화·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달리 농협이 직접 운영하며 농산물 도매는 물론 이를 하나로클럽과 식재료매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 도매매장에서 하루 400t 규모의 농산물을 도매로 들여와 하나로클럽에서 200t가량을 직거래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중소형 유통업체나 수도권 등으로 거래할 예정이다. 농협은 하루 매출액을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전북의 엘드건설이 지난 10월21일 최종부도 처리돼 공사가 두달째 중단됐다.

엘드건설은 전북 시공능력평가 4위의 중견건설사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엘드건설 관계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라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로 준공까지는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농산물유통센터는 당초 9일 개장하려던 계획이 최소 4~5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개장이 늦어지면서 광주농산물유통센터는 하루 4억원씩 매출 손실을 입게 돼 손실규모는 최소 500억~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센터에서 일하는 상시 인력 1000여명의 일자리도 사라져 이들이 창출하는 직·간접 효과도 수십억원 잃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협과 엘드건설간 공사 재개를 놓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 연내 공사 재개는 힘들어 보인다.

농협은 지난달 엘드건설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지만 엘드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장 예정이던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가 지난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다시 '꿈틀'

11월중 223건 50% ↑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반면, 전남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는 223건으로, 전달 132건 지난해 같은 기간 162건보다 크게 늘었다.

낙찰가율은 94.8%로 전달(89.8%)보다 5%포인트 증가하며, 부산(102.8%), 경남(98.9%), 전남(95.8%)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와 낙찰률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아파트(84.7㎡)로 감정가 9700만원에 낙찰가 1억2000만원(124%)을 기록했다. 광산구 월곡동 영천마을주공아파트(84㎡)는 감정가 1억1000만원에 낙찰가 1억2639만원으로 낙찰가율 115%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는 물건수가 전달보다는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여건에 머물렀다. 낙찰률은 전달보다 30%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상승해 95.8%에 달했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아파트(51㎡)로 감정가 3100만원에 낙찰가 5320만원을 기록, 172%에 달했다.

전남의 토지 경매시장은 이번 달에도 물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355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2829건이 낙찰돼 낙찰률 33.9%, 낙찰가율 71.7%, 평균 응찰자 2.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물건으로는 감정가 28억2923만여원의 완도 축양장이 네차례 유찰되면서 내년 1월3일 다섯번째 경매에 들어간다. 담양군 대덕면 납골당(감정가 23억7965만원), 광주 서구 치평동 영화관(감정가 232억7846만원), 보성군 보성읍 교회(감정가 32억6677만원) 등이 관심을 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민원처리 빨라졌다

'e-민원실' 개통 … 사업자등록 등 신속 접수

서광주세무서(서장 오용현)가 지난달 29일부터 'e-민원실'을 개통,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DWS·Digital Writing System·사진)을 도입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DWS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28종의 민원을 LCD화면에서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해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자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휴·폐업 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 신청 했지만 민원실에 비치된 6대의 DWS 작성기 화면을 통해 접수하게 돼 민원처리 시간을 줄였다.

한편 서광주세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일까지 DWS 이용에 관한 시연회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고속 노사 '길거리 폭력' 눈살

터미널 광장서 몸싸움 … 이용객들 불편도

금호고속 노사갈등이 길거리 폭력사태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8일 금호고속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7일 낮 12시30분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 조합원과 사측 관계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 등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운수노조 측은 밝혔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는 폭력을 행사한 회사 임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은 이씨는 사규위반으로 승무중지의 징계를 받아 사내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며 강제로 사내에 들어오려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노사는 회의 중 소화기 분사, 터미널 주변 현수막 철거, 집회장소 선점과 집회 방해 등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운수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양측의 마찰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터미널 광장 주변에는 노-사 관계자들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외 원정도박 기업인 등 1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기업소득을 탈루해 해외원정 도박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18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해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18명으로, 기업 사주뿐만 아니라 연예 관련 종사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최근 해외원정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톱가수 등 인기 연예인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해외원정도박 알선 및 조장자 등이다. 특히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관련 기업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들은 대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해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년 철강재 생산량 6912만t

역대 최고…내수·수출 수요 급증 올해보다 5.8% 증가

내년 국내 철강재 생산량이 6912만t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철강협회는 8일 '2011년 철강재 수급전망' 자료에서 내년에 건설을 제외한 철강재 수요산업의 완만한 상승세 지속 및 신증설 설비의 생산성 향상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 6535만1000t 대비 5.8%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와 함께 철강재 내수 물량은 건설경기 부진에도 제조업의 성장 지속으로 올해에 비해 3.8% 늘어난 5391만5000t에 달해 호황을 구가한 2008년 5857만2000t의 9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의 고성장 지속에 힘입어 올해보다 4.4% 늘어난 2579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수입은 국내 공급 증가로 11.9% 감소한 2202만t에 그칠 것이라고 철강협회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크라이슬러 승용차 리콜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19일 사이에 제작한 짚랭글러 16대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제작한 그랜드보이저 94대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55.72 (-6.80)
▼ 코스닥지수	502.80 (-1.69)
▲ 금리 (국고채 3년)	3.08% (+0.19)
▲ 원·달러 환율	1,146.00원 (+14.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